

# 19世紀 前半期の 社會變動과 勞動思想

—Louis Blanc을 中心으로—

민 석 홍  
(서양사학과 교수)

## I. 루이 블랑의 成熟

19세기 유럽의 역사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라는 이른바 '2重革命'(Dual Revolution)의 결과와 그것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축으로 삼고 전개되었다. 프랑스혁명은 단순한 정치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혁명으로서 부르조아지를 담당자로 삼는 근대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혁명이었다. 그 기본이념은 '자유·평등·우애'로서 1791년까지 귀족적이고 봉건적인 양시앵 레짐은 타도되고 부르조아 중심의 자유주의적인 개혁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91년 헌법에서 시민을 재산의 유무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 사실만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91년까지의 혁명은 자유의 이념에는 충실하였으나 평등의 이념은 法的이고 기회균등이라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형식적인 것으로 그쳤다. 부르조아지는 이로서 일단 만족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나 혁명초부터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르조아지의 승리를 가능케 하였던 도시의 민중과 농촌의 농민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평등의 이념의 보다 더 철저하고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향하여 혁명을 더 진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부 수정주의 혁명사가들이 혁명의 '일탈'(dérage)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93~94년 혁명은 바로 이러한 상궤로드로 불리워지는 민중이 혁명의 주도권을 잡은 민중혁명의 시기로서 사회민주적인 공화국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민중혁명은 1794년 7월의 테르미도르 反動으로 좌절되고 總裁政府로 알려진 91년의 체제와 유사한 제한선거에 입각한 부르조아 체제가 수립되고 그것은 나폴레옹의 독재체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프랑스혁명의 경위로 보아 알 수 있듯이 혁명은 민중의 정치참여와 그들의 경제적 평등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미래의 과제로 남겼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를 19세기에 보다 현실적으로 첨예하게 정치 사회문제로 부각시킨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은 주지하다시피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근대자본주의를 완성시킨 동시에 자

1) 민석홍 엮음, 프랑스革命史論(까지, 1988), 서론 참조.

본가와 노동자라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적인 두 계급을 형성시켰다. 이 두 계급, 특히 노동자계급의 양적 규모나 질적 내용, 즉 구성원의 사회적 성분은 각국의 산업화의 시기와 속도, 그리고 진행과정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시작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된 영국에 비하여 그 시작이 늦고 진행속도도 완만했던 프랑스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 적어도 19세기 전반기에 있어 공장노동자의 수나 규모는 작았고 오히려 수공업자(artisan)와 숙련공(skilled workers)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항운동에 앞장을 선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sup>2)</sup>

19세기 전반기의 노동자계급은 그 구성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였으나 다 같이 산업화의 진행에 따른 빈부의 격차의 증폭과 그들의 빈곤화, 그리고 이에 따른 비참한 일상생활에 시달리고 있었다. 초기에 그들은 소박하게 그들의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기계의 탓으로 돌리고 기계의 파괴에 나섰다. 산업혁명초기에 영국에서 자주 발생한 기계파괴운동(Luddism)은 최근 홉스봄(E.J. Hobsbawm)과 톰슨(E.P. Thompson) 등에 의하여 그것이 결코 산업혁명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反動的'인 것이 아니라 단결금지法(Combination Act, 1799~1800)으로 조합결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집단행동이요, 고용주를 위협함으로써 단체협약권을 얻고자 한 운동이라고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sup>3)</sup> 확실히 기계파괴운동은 산업혁명초기의 가장 소박한 노동운동이었으며 기계에 대한 단순한 증오라기보다 그것의 파괴를 통하여 고용주에 압박을 주고 그리므로써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빈번하게 거의 보편적으로 사용된 수단은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파업은 비단 산업혁명초기만이 아니라 19세기를 통하여 아니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지위향상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전반기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당시 노동자들의 단결이 금지되어 있었고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의 파업 역시 조직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며 산발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저항을 통하여 급진적이고 의식화된 노동자들은 막 싹트기 시작한 사회주의사상에 끌리고 몰들어갔다.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노동문제가 그 심각성을 드러내자 완성되어가는 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사상이 19세기 초에 대두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의 오웬(Robert Owen, 1771~1858), 프랑스의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와 생-시몽(Claude Henri de Saint-Simon, 1760~1825) 등,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하여 '空想的'(utopian)이라고 낙인찍힌 초기사회주의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사회주의사상을 전개하고 새로운 미래 사회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초기사회주의자의 제 2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루이 블랑(Louis Blanc, 1811

2)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기에 걸친 프랑스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 노동운동에 관하여는 William H. Sewell, Jr.,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1980)를 참조, 특히 Chap. 7.

3) Albert S. Lindemann, *A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1983), pp. 59-60.

~1882)은 1811년 10월 29일 마드리드에서 태어났다. 그의 祖父는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프랑스혁명이 과격해진 국민공회시기에 리옹(Lyon)에서의 만정부 만란에 가담한 탓으로 체포되어 1794년 6월에 파리에서 처형되었다. 루이의 아버지도 이 때 같이 투옥되었으나 탈출하여 전전하다가 처가쪽의 연줄로 에스파니아 왕이 되어 있던 조제프 보나파르트의 관리가 되었고, 그리하여 루이 블랑은 마드리드에서 탄생하였다.<sup>4)</sup>

그가 탄생한지 몇달 후에 에스파니아 주둔 프랑스군이 에스파니아의 저항운동에 패함으로써 그 곳의 프랑스관리들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루이의 아버지 또한 에스파니아를 떠나 카스트르(Castres)에 자리잡았다. 그 직후 일생 동안 보기 드문 두터운 형제애로 묶여지게 될 동생 샤를르(Charles Blanc)가 태어났다(1813). 이 무렵 루이의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그 동안 불규칙적으로나마 外地로부터의 철수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年金이 나폴레옹시대의 종말기의 혼란통에 중단되고 아버지는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그나마 가출해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루이는 코르시카의 外祖母에게 맡겨져 그 곳에서 구식의 王朝風의 생활규범에 따라 양육되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지면서 루이의 집안형편은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가출했던 아버지가 돌아오고, 1821년에는 루이의 할아버지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복고왕조의 동정으로 많지는 않으나 年金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두 아들에 대한 장학금도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루이는 동생과 더불어 로데스 王立學校(Collège de Rodez)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1821). 시대가 왕정복고기였고, 교사는 거의 모두가 성직자였기 때문에 교육은 가톨릭적이고 왕당파적이었다. 이를테면 역사과목에서는 계몽사상이 제외되고 혁명을 언급할 때는 이를 증오하도록 가르쳤다. 그래도 루이 형제의 학창생활은 별 탈없이 순탄하게 흘러갔다. 루이는 공부를 잘하는 편으로 특히 토론에 뛰어났으며 수사학과 철학에서는 매년 우등생으로 상을 받았다. 한편 이러한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교육에서도 루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다. 즉, 루이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友愛의 개념을 처음 발견하게 되었으며 후에 '복음의 전도자인 크리스트를 감상적인 사회주의자로 변형' 시키게 된다.<sup>5)</sup>

1830년 7월 하순 루이 형제는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파리로 향하였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얼마 안되는 年金으로 생활하는 정신병자인 아버지 밑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파리로 가는 도중 그들은 7월 革命의 소식을 듣고 王이 퇴위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당파적인 분위기와 교육을 받고 자란 루이는 처음에는 약간 당혹하였으나 그가 입고 있던 학생복에 달린 百合꽃 단추(百合은 부르봉왕실의 꽃)를 떼어내고 계속

4) 루이 블랑의 생애에 관해서는 다음 2書에 주로 의거하였다. Leo A. Loubère, *Louis Blanc: His Life and his Contribution to the Rise of french Jacobin-Socialism*(1961) : Jean Vidanlenc, *Louis Blanc*(1811~1882) (1943). 필요한 경우에만 引用.

5) Leo A. Loubère, p. 4.

파리로 향하였다. 루이의 변신의 상징이었다.

혁명 후의 파리는 루이 형제에게 결코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는 않았다. 7月王政은 루이 집안을 적대적인 가정으로 분류하여 그의 아버지에 지급되던 年金이 정지되었다. 그리고 루이 형제에게는 새로운 체제내에서 관리가 될 길도 막혔다. 아직 어린 나이에(19세와 17세) 가진 돈도 얼마 안되는 두 형제에게 파리에서의 생활은 무척 어려웠다. 지붕밑 다락방을 얻어 절약에 절약을 했으나 한달만에 무일푼이 되었다. 직장을 찾았으나 키가 작고 소년티가 나는 루이에게 쉽게 일자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아선상을 헤매던 끝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으나 그 수입으로는 궁핍을 면할 수가 없었다. 자공심이 강하여 파리에 있는 친척집을 처음에는 찾지 않았으나 궁한 끝에 숙부뻘 되는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살림에 보탬이 되기는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타치는대로 어린애들을 가르치고 필사도 하였다. 이러한 가난과 궁핍의 밑바닥 속에서도 두 형제의 사랑은 금이 가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파리에서 이렇다 할 영구성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루이는 1832년 아라스(Arras)의 사업가 알렛트(Alexis Hallette)의 아들의 가정교사 자리를 받아들여 아라스로 떠났다. 알렛트는 약 600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제철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그 자신 몇개의 기계장치관계의 발명도 한 기업가였다. 알렛트는 물론 기계생산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믿고 있었으며 루이는 그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공장의 생산과정과 그 제품을 눈으로 보고 기계생산의 위력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유롭게 공장을 방문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 곳 노동자와 접촉하고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아라스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낮았고<sup>6)</sup>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빈곤하였다. 그들의 궁핍한 생활을 직접 관찰할수록 루이는 스스로의 가난했던 경험으로 그들에게 강한 동정심을 가졌으며, 노동자들이 그러한 가난속에서도 배우려는 의욕에 불타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하였다. 그의 사회주의사상의 基底가 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들의 자기향상능력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 아라스에서 싹텄다.

루이는 여가를 이용하여 공장을 찾고 노동자들과 접촉하는 외에 무소불 비릇하여 많은 책을 읽었다. 아라스는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의 고향이기도 하여 그를 직접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었으며 로베스피에르가 투고하기도 한 학회(Académie d'Arras)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어 루이도 詩作을 투고하여 입상도 하였다. 루이 불랑의 잠재적인 지적 능력이 다양하게 꽃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미래에 있어 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아라스에서 발간되는 「파-드-칼레신문」(Propagateur du Pas-de-Calais)의 편집인 드조르즈(Frédéric Degeorge)를 알게 된 일이었다

6) 숙련공의 일당이  $2\frac{1}{2}$  프랑이었다. 같은 책, p.6.

다. 드조르즈는 공화주의 左派의 旗手로서 루이는 그의 영향하에 과거의 왕당파적인 사상이서 완전히 탈피하고, 공화주의자로 변신하게 되었다. 루이는 처음 드조르즈의 신문에 서평을 간간히 썼으나 점차로 본격적인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널리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가 아라스학회로부터 수상한 詩作品의 공표과정에서 학회로부터 로베스피에르와 당통(Danton)에 관한 지나친 찬사 두 구절을 삭제당한 사실도 그로 하여금 문학이 아니라 저널리즘으로 향하게 한 동기의 하나였다. 이왕 저널리즘의 세계에서 활동하자면 아라스와 같은 지방도시 보다는 역시 파리가 훨씬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루이는 동생 샤를르도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아라스에 온지 2년만인 1834년 당시 가장 유력한 공화파 일간지였던 「나쇼날」(National)紙의 편집인에 대한 드조르즈의 추천장을 품에 안고 파리로 돌아왔다.

때마침 파리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반정부소요가 잔인하게 진압된 직후였다. 거리는 어수선하였고 신문사들도 탄압의 여파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탓으로 모처럼 유력한 추천장을 휴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이는 「나쇼날」紙에 들어가지 못하고 1832년에 창간된 「봉상스」(Bon Sense)紙에 입사하였다. 「봉상스」紙는 「나쇼날」紙에 비하면 한 급 낮은 신문이었으나 그래도 제법 유력한 야당지였고 편집인 중에는 민중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로드(Victor Rodde)가 있고 노동자를 위한 투고란(Tribune des Proletaires)도 있었다. 당시 야당지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더구나 1835년에 새로운 언론탄압법이 제정됨으로써 야당지들은 합법적인 노선을 지키면서 당국의 끊임없는 파괴공작과 고발, 그리고 과중한 벌금부과에 시달려야만 했다.<sup>7)</sup> 그러나 루이는 언론을 그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左派의인 공화주의입장을 고수하면서 로드의 노선을 따라 필봉을 휘둘렀다. 얼마 안가서 로드가 사망하자 루이는 실질적으로 그의 뒤를 이어 편집인이 되었으나 나이가 너무 젊은 탓으로 대외 접촉은 연로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다. 루이는 완고하리만큼 신문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신문의 상업성을 배격하고 따라서 광고를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봉상스」紙의 판매는 증가하여 루이가 편집인이 된 직후(1836년) 파리에서 1647부가 팔리고 루이는 2,000프랑이라는 고액의 연봉을 받았다.

1837년의 선거에서 루이는 反政府 진영의 선거위원회의 발기인으로 활약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루이에게는 적어도 야당세력이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만도 수확이었다. 1838년에 철도부설을 개인기업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관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루이는 당시의 일반여론과는 달리 강력하게 국가의 관장을 주장하였다. 루이는 철도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것이 개인기업들에게 맡겨졌을 경우 그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여 부패할 뿐 아니라 정치권력마저 그들의 수중에서 놀

7) 1841년까지 파리의 3개 法院이 야당지에 부과한 벌금액은 427,672 프랑에 달하였다. 같은 책, p.9.

아날 것을 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루이의 주장은 「봉 상스」紙의 경영주의 의견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루이는 사임하였다.

「봉 상스」紙를 사임한 루이 블랑은 아라스에서 파리로 돌아오던 때의 블랑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共和左派의 지도적인 언론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블랑은 선거권의 확대에 의한 민주주의의 달성을 넘어서 사회 자체의 변혁을 구상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하여 그는 단순한 日刊紙가 아니라 과거에 그가 「봉 상스」紙에 실을 수 없었던 과격한 글을 기고하였던 「Revue républicaine」(1835년에 폐간)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여 진보적인 의견과 사상을 결집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839년 「Revue du Progrès」(進歩誌)를 창간하고, 그 창간호에 그의 목표를 천명하였다.

블랑은 새로운 정치적 통합을 위하여 첫째로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부의 수립, 둘째로 사회의 공동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셋째로 單院制 입법부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견고한 기반을 가진 코민(Commune)의 설치, 둘째로 생산의 증대와 그것의 혜택의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노동의 재조직을 내세웠다.<sup>8)</sup> 이러한 정치 및 사회개혁안은 물론 7月王政의 부정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으나 과격하다기보다는 大革命期의 자코뱅적인 진통과 초기사회주의사상을 흡수한 中道의인 진보적 성격의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블랑은 광범한 정치 및 사회개혁을 구상하면서도 그것의 실현이 폭력혁명이나 공포정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즉 사회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여 사람들을 계몽하고 설득하여 그들의 마음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계몽주의적인 방식을 생각한 것이다.

「進歩誌」의 발간 취지도 그러했거니와 창간호에 제시한 개혁 중 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블랑은 1840년 6월과 8월호에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고 9월에 이를 모아 「노동의 조직」(Organisation du travail)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초판의 인쇄과정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된 노동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아 널리 신전되고 정부의 탄압으로 초판이 입수되자 오히려 그것이 선전효과를 나타내어 2週만에 재판을 찍게 되었다. 1847년까지 5版이 발간되면서 비판과 이에 대한 블랑의 반박을 수록하여 책의 분량은 초판의 2배가 되었다. 블랑은 「노동의 조직」에 이어 1841년에 7月王政 10년간의 비리와 자본주의의 폐단을 날카롭게 파헤친 「10년간의 역사」(Histoire des dix ans, 1830~1840)의 첫째권을 발간하였다. 말하자면 블랑은 그의 사회개혁의 구상과 그러한 개혁이 필요한 역사적 배경을 저술한 것이다. 이 역사시술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블

8) Revue du Progrès, No. 1 (15 janvier 1839), Jean Vidalenc, p.15에서 再引用.

랑은 그것의 계속적인 저술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 결과 「進歩誌」의 편집일이 소홀해지고 결국 1842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이를 폐간하였다. 그러나 다음해에 블랑은 르드뤼-롤랭(Ledru-Rollin), 라브네(Lamenais), 아라고(Arago), 까베낙(Cavaignac) 등과 더불어 「La Reforme」紙의 편집에 참가하였는 바, 이 잡지는 사회주의자를 포함한 共和左派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온건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나쇼날」紙와는 그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1844년 11월에 블랑은 「노동자의 진정」(Pétition des Travailleurs)을 작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조건에 公的 조사를 요구한 바 이 진정서는 대부분의 左派紙에 게재되어 사회 각층으로부터의 호응을 얻어 13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았다.

「노동의 조직」과 「10년간의 역사」를 발간한 이래 블랑은 단순히 언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정치인과 언론인만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에게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블랑은 공개적이거나 지하조직이거나 정치집단에 참가하기를 꺼리고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당대의 지명인사와의 접촉을 통하여 그들을 자기 진영에 끌어들이고 그럼으로써 계몽과 설득을 통하여 원하는 사회개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후에 황제가 될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Louis Napoleon Bonaparte)와의 회합(1844)이나 여류작가인 조르주 상드(Georges Sand)와의 접촉 등은 이러한 뜻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나파르트와의 회합은 두 사람의 견해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며 블랑이 그에게 보낸 동정적인 서한을 1852년 12월에 보나파르트가 노동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공개함으로써 블랑은 한때 곤경에 빠진 일도 있었다. 상드와의 접근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블랑이 그녀의 딸과의 결혼을 생각하다가 성사하지 못한 에피소드만을 남겼다. 1845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블랑은 입후보할 기회가 있었으나 共和派의 지지표를 분산시킬 위험과 정당의 구속에 대한 혐오로 입후보를 포기하였다. 이 선거는 당연하게도 7月王政派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반대세력의 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1848년의 2月革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 II. 初期 社會主義者들

루이 블랑의 사회주의사상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의 특이성과 역사적 위치를 파악하려면 그보다 앞서 있었던 대표적인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을 간략하게나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9)</sup>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마르크스(Marx)와 엥겔스(Engels)에 의하여 ‘空想的’(utopian)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푸리에(Charles Fourier, 1772~1837)인 것 같

9) 초기사회주의에 관한 서술은 주로 Albert S. Lindemann, A History of European Socialism (1983), Chap. 2, The First Socialists, 1800~1848에 의거하였다.

다. 왜냐하면 그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매우 환상적이고 확고한 현실감이 없기 때문이다. 푸리에에는 뜨내기 장사를 하면서 독학으로 지식을 흡수하였고 동시대의 지적세계나 문화세계와도 동떨어진 고독한 존재였다. 그의 글 속에 빈번하게 나오는 낱말이 ‘理性’과 ‘自然’인 것으로 보아 그가 계몽사상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몽사상가가 부르조아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삼은 것과는 달리 그는 그가 살게 된 부르조아사회를 혐오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과 열정이 억압되지 않고 오히려 충족되는 완전히 비억압적인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는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計量하는 原子의 인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서로 견고하게 정서적으로 결합된 구성체였다. 푸리에에는 그가 목격한 공장이나 작업장 또는 농촌에서의 육체노동은 한결같이 비인간화의 요인을 지닌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모든 일이 즐겁고 소망스러우며 정신적으로도 깊은 만족을 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푸리에에는 이러한 비억압적이고 모든 노동과 일이 즐겁기만 한 이상적인 사회의 단위체로 ‘팔랑스테르’(Phalanstère)를 제시하였다. 팔랑스테르는 1,620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자급자족의 공동체이다. 그 주민수의 산출근거가 특이하다. 푸리에에 의하면 810가지의 서로 상이한 心理的 틀이 있고 이를 남녀로 곱한 수자가 1,620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심리의 틀과 그것에 연유하는 보다 더 많고 다양한 熱情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결합하여 견고한 공동체를 구성한다. 푸리에에는 이것을 ‘熱情引力의 法則’(Law of Passional Attractions)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뉴턴의 萬有引力의 法則이 引力에 의한 우주의 整合的인 구성을 설명하듯이 인간사회의 공동체적인 결합을 설명해 준다. 푸리에에 의하면 남녀간에는 자연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자체가 서로 크게 다르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은 달성할 수가 없고 또한 소망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극단적인 富의 차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기에 팔랑스테르에는 가난한 주민은 없다. 그 주민들은 적정한 수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풍족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수입이나 생활의 여유의 차이가 질서와 대립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상이한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연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공헌한다는 것이다.

이로써도 알 수 있듯이 푸리에에는 인간의 모든 정열을 용인하고 따라서 그는 일반사회에서 금기로 삼는 性行爲조차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이와 더불어 그는 최초의 급진적인 여성해방의 제창자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현존 사회질서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노예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文明의 발전도는 해당 사회에서의 여성의 해방의 정도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는 완전한 남녀간의 평등을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남녀간에는 다양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육체적 심리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오히려 인간의 열정의 만족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푸리에에는 생존시에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세운 공동체들도 그의 이상에서 멀었을 뿐 아니라 단명에 끝났다.

당대에 푸리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은 영국의 로버트 오웬(Robert Owen, 1771~1858)이다. 푸리에와 마찬가지로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오웬이 명성을 떨친 것은 스코틀랜드의 뉴 라나크(New Lanark)의 섬유공장의 공동경영자로서였다. 그는 철저한 환경론자로서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소산이며 현재 사람들이 불행하고 부도덕하며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것은 오직 나쁜 환경의 탓이라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웬은 이러한 환경론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뉴 라나크 공장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혁을 도입하였다. 즉 노동시간의 단축,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적절한 휴식, 미성년자 노동의 폐지, 노동자 주택의 개량, 노동자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 휴직 보험 등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개혁으로 2,500명에 달하게 된 뉴 라나크 공장과 그 마을에는 술주정이 없어지고 경찰과 관리가 필요없게 되었으며, 소송, 빈민법, 자선 등도 낮선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공장의 이윤은 증대하였다. 얼마 안 가서 뉴 라나크 공장과 오웬은 쏠 유럽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왕족으로부터 일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견학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오웬은 푸리에보다는 산업화가 지니는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공장제도가 사회적 무책임과 파괴적인 경쟁, 그리고 잔인한 개인주의를 낳는다고 논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행복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은 자유시장 제도의 생산력의 증대가 아니라 조화로운 협동과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신념에 입각하여 그는 푸리에의 팔랑스테르를 연상시키는 理想村으로서 '協同 마을'(Villages of Cooperation)을 구상하였다. 이는 자급자족의 농업적인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은 실업자, 그것도 기계의 도입으로 직업을 상실한 사람들로 구상되었다. 오웬은 이러한 이상촌이 몇개만이라도 건설된다면 그것의 협동적인 노동의 매력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 기업을 능가하는 우수한 생산성 때문에 단시일내에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오웬의 구상은 정부로부터나 私企業 부문으로부터도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지도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오웬이 경영주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편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뉴 라나크의 공장경영도 많은 추종자를 낳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관심이 희박해졌다.

사실 뉴 라나크의 실험은 가부장적인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차원의 실험이지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오웬은 1820년대에 신대륙에서 사회주의적인 이상촌 건설에 나섰다. 즉 1824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인디애나의 하모니에 '뉴 하모니'(New Harmony)로 알려진 이상촌을 건설하였다. 그것은 재산의 共有와 협동적 생산, 그리고 평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한 공동체였다. 뿐만 아니라 뉴 라나크에서와는 달리 그 운영은 구

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통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오웬의 큰 기대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신대륙에서의 실험마저 실패로 돌아가고 그의 재산 또한 이 계획의 실천으로 고갈되었다. 1828년에 거의 파산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온 오웬은 당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노동운동에 나머지 여생을 바쳤다. 엥겔스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30년간에 전개된) 영국에서의 모든 사회운동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모든 前進은 로버트 오웬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sup>10)</sup>

생-시몽주의(Saint-Simonism)의 시조인 생-시몽(Claude Henri de Saint-Simon, 1760~1825)은 푸리에나 오웬과는 상당히 다른 계열에 속한다. 귀족출신인 생-시몽은 혁명전에는 방종한 생활을 하였고 혁명기에는 國有財産으로 투기하여 투옥된 일도 있었다. 1802년부터 그는 그의 모든 정력을 새로운 인간과학의 수립에 쏟았다. 생-시몽은 그의 시대를 '봉건적이고 신학적인 체제로부터 과학적인 산업체제로의 移行期'로 파악하고 사회의 모든 실질적인 힘은 따라서 산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1816년 이후 이러한 생각을 중심으로 생산의 무질서상태를 종식시킬 산업의 제조직을 구상하였다.<sup>11)</sup>

생-시몽은 과거의 특권계급이었던 귀족이나 성직자만이 아니라 地代로 생활하는 대지주들까지도 쓸모없는 寄生的인 '有閑人'(les oisifs)으로 규정하고 배격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으며 따라서 새로운 사회질서에서는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産業人'(les industriels)이 지배적이고 지도적인 지위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산업인 속에는 공업경영자는 물론 은행가와 상인, 농업경영자 등 모든 종류의 기업가가 포함될 뿐 아니라 학자와 예술가, 기술자와 모든 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자도 포함되지만 생-시몽에게 있어 산업체내에서의 노동자의 지위는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산업과 자본은 가장 유능한 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統治도 저술가, 예술가 및 기술자로 구성되는 '發明部'(invention), 수학자와 물리학자로 구성되는 '審査部'(examen) 그리고 기업의 長들로 구성되는 '執行部'(execution)의 3부에 맡겨진다.<sup>12)</sup>

이렇듯 생-시몽의 새로운 사회질서에 있어서는 지능과 창조력이 뛰어난 실력자들의 엘리트가 사회와 경제만이 아니라 통치와 문화를 지배하고 주도하며 어떠한 의미에서 산업의 발전이 그 초점이 된다. 노동자들도 '산업인'으로서 그들의 몫을 해야 하지만 그들은 '산업인'의 엘리트의 권위와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의 경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생산의 계층제가 쌍방에 다같이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시몽

10) Friedrich Engels,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International Publishers, New York, 1935), p. 43.

11) A. Jardin, A.J. Tudecq, *La France des notables, 1815~1848* (1973), p.101. 참조.

12) 같은 책, 같은 곳.

에게 있어 평등은 사유재산의 폐지를 뜻하지 않으며 각자가 생산에 이바지한만큼 그것에 비례하여 보수와 혜택을 받는 것을 뜻하였다.<sup>13)</sup>

이와 같이 산업인의 엘리트 중심의 산업체제를 구상하면서 생-시몽은 ‘가장 수적으로 많고 또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곤경에 빠져 있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파괴적인 개인주의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참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자유주의적인 여러 제도는 빈곤한 노동자계급의 구제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의회나 代議制가 아니라 질서와 계층제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계획과 재조직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생-시몽의 사상은 여러 갈래로 해석되었고 第2帝政期에는 프랑스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발전도 있었다. 생-시몽계통의 사회주의자들은 18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생-시몽사상의 보급을 꾀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를 문제삼았다. 생-시몽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수로써 사유재산을 옹호하였으나 그것을 신성불가침의 자연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의 사회주의 추종자들은 이점을 강조하면서 사유재산은 사회의 초석이 아니라 사회조직의 한 도구라고 주장하고 나아가서 상속으로 얻어진 모든 富의 國家占有를 옹호하게 되었다. 생-시몽주의자들의 상속권 공격은 최대다수 계급의 해방과 생산성提高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결코 바비프주의자(Babouvists)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적 평등주의에 귀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생-시몽주의자들은 富의 집중에 의한 노동의 착취도 중요시했으나 바비프주의자들과 같이 貧者를 구하기 위하여 富者의 재산을 박탈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시몽주의자들은 절대적인 富의 팽창과 증대를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富의 증대 속에서 貧者와 富者는 합리적인 결합으로 다같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합리적인 생산성 제고와 여러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간단히 말하여 생-시몽주의자들의 핵심적인 공헌은 바비프주의자의 공산주의적인 회고적인 경향과 사회주의를 고립된 농업공동체에서 가장 잘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타파하고 사회주의를 산업화를 통한 진보의 개념과 견고하게 결합시킨데 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생-시몽주의자의 관심이었던 사회주의와 노동자계급의 일체화는 1830년대와 40년대의 핵심적인 과제였으며 공상적 사회주의로 하여금 그 초기의 도피자적 경향을 탈피하여 역사에 뿌리박은 운동과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현실과 직접 대결하고 이를 포용케 하였다’.<sup>14)</sup>

13) 崔甲壽, ‘Saint-Simon의 階級理論’, 西洋史研究, 第2輯(1980), pp.131-132 참조.

14) Albert S. Lindemann, p.51.

### Ⅲ. 루이 블랑의 「勞動의 組織」

1830년대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復古王政期の 오랜 잠에서 깨어난듯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 주된 계기의 하나가 7月 革命에의 참여임에는 틀림없으나 또 다른 보다 더 중요한 계기는 産業化의 진행이었다. 프랑스에서의 산업화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1820년대에 시작되어 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막연하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프랑스에서의 산업화가 영국이나 독일과 현저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780년대로부터 1830년대에 걸쳐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상의 변혁이 일어났고 1871년 이후의 독일에서도 그러한 변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의 산업화는 19세기를 통하여 완만하게 진행되었고 1780년대 이후의 영국이나 1870년대 이후의 독일에서와 같은 눈부신 변혁이나 산업의 발전은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의 경제사가 클라팸(J.H. Clapham)은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없었다고까지 단언하였다.<sup>15)</sup> 사실 종래의 경제사가들은 19세기의 프랑스 경제가 지연되고 정체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세밀히 살핀다면 19세기에 프랑스 경제는 느리기는 하나 착실하게 성장하였고 그것은 국민 1人當 生産高의 증가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래 산업혁명을 논할 때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의 급격한 증대,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신흥공업도시의 발생 등 외형적인 현상들에만 주목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현상들이 19세기를 통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국민 1人當 生産高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증가를 지표로 삼는다면 19세기의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였고, 따라서 오늘날 프랑스의 산업화는 결코 영국을 모방하여 뒤늦게 출발하여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비교적 일찍 시작된 영국과는 다른 과정을 겪은 지속적인 산업과 경제성장의 성공적인 표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가 영국과는 다른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 몇 가지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프랑스의 人口 증가가 완만하였다는 사실이다. 19세기를 통하여 유럽 전체의 인구가 倍加하고 영국의 그것이 350%, 독일의 인구가 250% 증가한 데 비하여 프랑스의 인구 증가는 고작 40% 미만이었다. 이러한 소규모의 인구증가는 그나마 농촌에 흡수되고 따라서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다. 인구 1萬명 이상의 도시인구가 1806년에 260萬명인데 비하여 1851년에 그것이 약 500萬명으로 늘고 있을 뿐이며, 기준을 낮추어 2,000명 이상의 주민을 가진 지역을 도시로 간주하여 통계를 잡더라도 도시인구는 1806년에 全人口의 1/5에서 1851년에 全人口의 1/4로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15) J.H. Clapham, *Economic Development of France and Germany, 1815~1914* (4th ed., 1936) p. 53, William H. Sewell, Jr., p. 146에서 再引用. 이하의 서술도 같은 책에 의거함.

이러한 느린 인구증가와 완만한 도시화현상과 더불어 프랑스의 산업화과정에 있어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은 기계와 증기력을 이용하는 공장의 출현과 보급이 또한 영국과는 달리 대단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프랑스 경제는 상당기간 소규모의 수공업생산에 주로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프랑스 경제가 침체하였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느린 인구 증가와 완만한 도시현상은 국내 수요를 급격하게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규모 수공업으로서 이를 충당할 수가 있었고, 프랑스의 전통인 품질좋은 정교한 제품생산에는 제재의 수공업생산이 적합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 있어 뒤지는 일도 별로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산업화의 특이성과 그것으로 결과된 산업구조에 따라 19세기 전반기의 프랑스 노동계급의 구성 또한 특이한 복잡성을 지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산업화에 따른 수공업자의 몰락현상은 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수가 증가하면 하였지 감소하지는 않았다. 느리나마 공장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장노동자의 수도 자연 증가하였지만 수공업자나 숙련공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호간의 유대와 협동, 그리고 집단행동에 있어 수공업자들은 오랜 전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계급을 주도한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수공업자나 숙련공은 나름대로 불안의 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산업화의 진행이 결국은 그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지위를 박탈하여 임금노동자로 전락케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위협이나 압력외에 실제로 구체적인 노동상황이나 조건도 변화하고 있었다. 느리기는 하나 그래도 도시인구가 늘고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가들은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으로 싼 값에 생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예를 들어 구두 제조에 있어 종래는 주문에 의하여 숙련공이 만들던 구두를 이제는 그 공정을 나누어 분업화하고 각 공정에서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여 다량의 구두를 싼값에 시장에 공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교한 기술은 별로 필요없고 숙련공이나 기술없는 부녀자나 미성년 노동자도 공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충분히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두 제조만이 아니라 양복, 의상, 家具 제조 등의 분야에서도 동일한 분업체제(confection)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또 다른 변화는 下請(都給)制(marchandage)의 등장과 확산이었다. 이는 건축업에서 특히 널리 시행되었으며 큰 건축업자는 하청업자를, 하청업자는 그들대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컸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논할 수는 없다. 요는 프랑스의 수공업자들은 산업화에 따라 급격하게 몰락하지는 않았으나 그들 나름대로 산업조직의 변화에 따라 그 지위, 수입, 그리고 노동조건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는 이 시기의 실질 임금이 동결되거나 하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웰(W.H. Sewell, Jr.)이 종합한 것을 보면 실질 임금과 1人當 소비는 181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820년대 초에 절